

Global Issue Paper

NAFTA 재협상과 멕시코 주요 산업별 영향



CONTENTS

목 차

요 약

I. 미국-멕시코 NAFTA 재협상 잠정합의에 따른 산업별 영향 / 1

- | | |
|---|--------------------------|
| 1 | 1. 미-멕시코 NAFTA 재협상 합의 배경 |
| 2 | 2. 미-멕시코 NAFTA 재협상 주요내용 |
| 3 | 3. 산업별 영향 |
| 3 | - 자동차 |
| 4 | - 섬유 |

II. 시사점 / 5

[부록] 멕시코 주요산업별 현황 / 6

- | | |
|---|--------|
| 6 | 1. 자동차 |
| 8 | 2. 섬유 |

요 약

I. 미-멕시코 NAFTA 재협상 잠정합의에 따른 산업별 영향

- (합의 배경)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NAFTA 재협상 의사를 표명. 이에 2017년 8월 16일, 3국 재협상이 개시되었으나 3국의 이견 차이로 합의에 난항
 - 이후, 미국과 멕시코는 양자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8월 27일 원칙적 예비 합의 도달
- (주요 내용) 미국과 멕시코는 자동차 역내 생산 원산지 비율을 62.5%에서 75%까지 확대, 자동차 부품의 40~45%를 시간 당 16달러 이상을 버는 고임금 노동자가 생산하도록 의무화, 섬유 분야 원산지 규정 강화 등에 합의하였으며 분쟁해결, 일몰조항, 지적권 분야에서도 합의
- (산업별 영향: 자동차) 역내 부품조달 비율 인상으로는 기 진출기업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수출 쿼터와 고임금 조건은 진출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산업별 영향: 섬유) 이번 합의로 멕시코 기업 또는 기 진출 섬유 기업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단, 미국이 섬유·의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역외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 멕시코에 섬유 원소재, 중간재를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은 영향 가능성

II. 시사점

- 멕시코는 이번 합의를 통해 캐나다가 새로운 NAFTA 내용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양자 간 자유무역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이번 합의 내용은 수출기업에게는 영향 가능성, 既 진출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우리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생산라인을 조정하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멕시코에 직접 진출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멕시코 주요산업별 현황

- (자동차 산업) 멕시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출은 멕시코 전체 수출의 약 24.9%를 차지할 정도로 멕시코 내 주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멕시코 내에는 총 30여개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진출해있으며, 멕시코 자동차 산업 주요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있는 7개 주에서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담당
- (섬유 산업) 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멕시코는 전 세계 9위 섬유제품 수출 국가임
 - '17년 기준, 미국이 전체 섬유제품 수출의 약 86.8%, 수입의 약 39.2%를 차지할 정도로 동 분야 미국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1 미국-멕시코 NAFTA 재협상 잠정합의에 따른 산업별 영향

1-1 미-멕시코 NAFTA 재협상 합의 배경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 1992년 12월 17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NAFTA 협정문에 서명을 하면서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
-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NAFTA 발표 후 회원국 간 교역량이 '94년~'16년 동안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및 NAFTA 재협상 개시

- 2016년 11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NAFTA 탈퇴(withdrawal) 가능성 공언
- 2017년 5월 18일, 라이트하이저 美 무역대표부 대표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NAFTA 재협상 의사 표명, '17년 8월 16일 3국 재협상 개시

* 무역촉진권한법 :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통상 관련 협상권을 위임하는 법

○ NAFTA 재협상 당초 일정보다 지연

- 회원국 3국은 일몰조항, 자동차 원산지 규정,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협상 지연
- 7차 재협상 이후 3차례의 장관급 회의까지 진행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

○ 미국-멕시코 NAFTA 재협상에 대해 원칙적 예비합의

- 3자 협상으로는 진전이 보이지 않자 미국과 멕시코는 양자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8월 27일, 미국과 멕시코는 재협상에 대해 원칙적 예비합의
- 2018년 8월 31일, 합의내용을 美 의회에 회부하였으며 3자 체제 지속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 재협상 시작
- 3국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향후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재협상 내용 발효

② 미-멕시코 NAFTA 재협상 주요내용

○ 자동차 분야

- (원산지 규정) 자동차의 역내 생산 원산지 비율을 62.5%에서 75%까지 확대,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유리의 경우, 역내산 비율 70%에 합의
- (고임금 조건) 자동차 부품의 40%(승용차)~45%(픽업트럭)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버는 고임금 노동자가 생산하도록 의무화
 - * 동 원산지 규정 또는 고임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5% 관세 부과
- (수출 쿼터) 자동차 수출쿼터(연 240만대)를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부과
 - * 후안 카를로스 베이커(Juan Carlos Baker) 멕시코 대외무역차관은 25% 고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차 협정문(side letter)에 합의했다고 발표

○ 섬유 분야

- (원산지 규정) 의류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역외 수입품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특히 의류에 봉제, 안감, 고무밴딩, 섬유 코팅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역내에서 진행한 건에 대해서만 관세혜택 적용
 - * 미국이 폐지를 주장했던 관세특혜수준(TPL)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음
- (검증 강화) 섬유 분야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세관 분야 협력 합의

○ 기타 주요합의 내용

- (ISDS) 국가의 강제 수용 또는 최혜국대우 위반과 같은 위중한 사안에만 선별적 적용. 단, 에너지, 통신, 인프라 등 일부 분야에는 동일하게 적용
- (분쟁해결)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제제 시 양국이 공동으로 분쟁해결 패널을 구성하여 해결하는 19번 조항은 폐지
- (일몰 조항) NAFTA 이행 기간을 16년으로 정하고 6년마다 재검토하기로 결정
- (지재권 보호)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 기간을 10년으로 합의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무관세 통관 기준을 5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확대
- (농산물 분야) 美 수확 기간에 한시적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 하였으며, 양국 특산품 인정 조항을 추가
 - * (멕시코) 데킬라, 메스칼 (미국) 버본 위스키, 테네시 위스키, 치즈

③ 산업별 영향 : 자동차

- 역내 부품조달 비율 인상으로 既 진출기업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멕시코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은 영향 가능성
 - 멕시코에 기 진출한 완성차 업체의 경우, 기존 수입 부품을 역내 생산 부품으로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 강화에 따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 * 다만 부품 교체 시, 기존 수입품과 품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음
 - 오히려 완성차 회사와 함께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협력사들의 경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규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2015년 멕시코 자동차부품협회(INA)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 내 1차 협력사 수는 약 600개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 중 90%가 멕시코에 진출
- 자동차 수출쿼터가 적용이 되면 멕시코의 자동차 수출량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이 자동차 수출쿼터를 240만대로 확정할 경우 멕시코 진출 자동차 기업들은 25% 고관세를 피해 미국에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할 것으로 보임
 - * 멕시코 자동차협회(AMIA)에 따르면 2017년 멕시코의 대미 완성차 수출은 총 2,335,245대
 - 멕시코 정부에서 기업별 수출쿼터를 배정하면 각 기업은 해당 쿼터만큼만 수출 예상
 - 최근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을 늘려왔던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경우,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에 판매량을 늘려 추가 생산량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멕시코 내 생산기지 신설 또는 확장을 고려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해당 결정을 보류할 것으로 보임
- 고임금 조건은 멕시코에 진출한 자동차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에 비해 숙련공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었기 때문에 시간당 16달러의 임금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
 - 일부 기업의 경우 핵심 부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고임금 조건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기업은 2.5% 관세를 내면서 멕시코의 저임금 인력을 활용할 것으로 보임
 - 각 기업은 관세만큼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

4 산업별 영향 : 섬유

- 미-멕시코 NAFTA 합의 내용은 멕시코 섬유기업 또는 멕시코 진출 섬유 기업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Global World Atlas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멕시코의 전체 섬유 수출량에서 對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7%로 동 분야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 이번 합의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계속 활용하여 수출량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
- 섬유·의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역외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 멕시코에 섬유 원소재, 중간재를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은 영향 가능성
 -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양 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을 적용하여 자국 섬유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쿼터 내에서는 관세특혜 수준(TPL) 등을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 하지만 미국 섬유산업연합회(NCTO)의 요청대로 양 포워드 규정의 예외 조항인 관세특혜수준(TPL)을 폐지하고, 특정 섬유 분야에 적용되는 단일 공정 규정(Single Transformation Rule)이 무효화 된다면 외국 기업은 수출이 사실상 불가
 - 기존 원산지 규정에도 외국 기업들은 감시망을 피해 우회수출을 진행해왔으나 미국, 멕시코 간 세관 협력으로 검증절차가 강화되면 쉽지 않을 전망

<참고: 현재 NAFTA 섬유 분야 원산지 적용 기준>

- 양 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 : 원사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역내에서 생산한 원사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가공, 수출할 때만 면세가 적용되는 규정
 - 관세특혜수준(Tariff preference level) : 양 포워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회원국 간 합의한 물량만큼 안에서 특정 조건하에서 특별관세 혜택을 적용해주는 혜택으로 협정 미체결국은 동 조항을 활용해 회원국에 섬유 원소재, 중간재를 수출할 수 있음
 - * 2017년 기준 멕시코의 대 미국 관세특혜수준은 4,650만m²
- 단일 공정 규정(Single Transformation Rule) : 북미에서 생산이 어려운 섬유 분야에 한정, 역내 생산 원사가 아니더라도 역내에서 재단 또는 봉제를 진행한 경우 면세 혜택을 주는 규정으로 현재 남성 드레스 셔츠, 면 잠옷, 여성 브라, 실크, 리넨 의류 등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시사점

- 멕시코, 최대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 유지
 - 캐나다가 새로운 NAFTA 내용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과 멕시코는 양자 간 합의된 내용으로 자유무역을 진행하기로 합의
 - 멕시코에게 미국은 매년 수출의 80%, 수입의 50%를 담당하는 최대 교역국이자 외국인 직접투자 1위국으로 자유무역 지속 가능
 -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NAFTA의 무관세 혜택을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수출기업에게는 영향 가능성, 既 진출기업에게는 기회 가능성
 -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기업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나 既 진출기업의 경우 역내 생산 비율만 충족하면 특별관세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기존 NAFTA를 활용할 때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멕시코에 진출한 업체 중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생산·공급하는 경우, 역내 생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외연 확장 가능
- 우리기업 수출 구조 변화 제안
 - NAFTA 2.0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아직 캐나다와의 합의 및 합의 후에도 3국의 의회 비준이 남아있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경우 2021년 1월에 발효
 - 우리 기업은 새로운 NAFTA가 발효될 때까지 수출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라인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점을 감안, 빠른 대응 필요
 - 국내에서 수출하는 방식 만이 아닌 멕시코에 직접 진출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재를 생산하는 협력사들의 경우, 대기업과 동반 진출 모델 적극 활용. /끝

부록

멕시코 주요 산업별 현황

1 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현황

- '17년 기준, 멕시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출은 약 1,017억 달러 규모로 멕시코 최대 수출 품목이며 전체 수출의 24.9% 수준
- 이 중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약 81.1%(약 825억 달러)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캐나다가 4.7%(약 48억 달러), 독일이 4.5%(약 44억 달러)로 그 뒤를 따름
- '18년 2분기 멕시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하며 견고한 성장세 유지

〈 멕시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국가	2015	2016	2017	2018 (2분기 누계)
미국	75,566	73,598	82,458	42,985
캐나다	4,460	4,561	4,814	3,063
독일	1,741	1,969	4,540	2,806
브라질	1,312	1,080	1,294	689
중국	1,432	1,174	1,241	953
기타	5,852	5,700	7,393	4,692
Total	90,363	88,082	101,740	55,188

* 주 : HS Code 87 합산 기준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현황

- '17년 기준, 멕시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입은 약 416억 달러 규모로 전자기기, 기계류에 이은 멕시코 3위 수입 품목
- 또한 수입총액은 전년 대비 약 11.8% 증가하며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회복
- 멕시코 자동차협회(AMIA)에 따르면 2017년 멕시코에서 판매된 총 1,530,320대 차량 중에서 수입차량이 총 906,240대로 전체 판매량의 약 59% 비중 차지

〈 멕시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입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품목	2015	2016	2017	2018 (2분기 누계)
미국	19,801	18,633	20,141	10,197
일본	3,774	4,171	3,878	1,727
중국	2,340	2,216	3,081	1,852
독일	2,042	1,949	2,777	1,749
한국	1,211	1,803	2,080	950
기타	8,097	8,471	9,686	16,475
Total	37,265	37,243	41,643	21,149

* 주 : HS Code 87 합산 기준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진출기업 현황

- 멕시코 내에는 약 30여개 브랜드의 자동차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그 중 진출 기간이 오래된 Nissan, GM, Volkswagen이 전체 시장의 55% 이상을 점유
- 멕시코에 32개 주 중 13개 주에서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있는 7개 주에서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80% 이상을 담당

〈 멕시코 자동차 시장 점유율 현황 〉

(단위 : %, %p)

기업명	2015	2016	2017	'16~'17 증감
Nissan	25.68	25.00	23.82	△1.18
General Motors	18.85	19.24	16.89	△2.35
Volkswagen	16.17	15.42	15.28	△0.14
Toyota	6.27	6.54	6.89	0.35
FCA	7.62	6.47	6.58	0.11
Honda	5.43	5.48	5.76	0.28
KIA	0.81	3.62	5.66	2.04

* 자료원 : 멕시코자동차산업협회(AMIA)

○ 최근 동향

- 멕시코는 '16년 최초로 인구 천 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300대를 돌파, 신차 판매량 또한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자동차 보급률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
- 멕시코 자동차협회(AMIA)에 따르면 '17년 기준 멕시코 친환경(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은 총 10,512대로 아직은 시장규모가 작으나 작년 대비 27.3% 고성장
- 오브라도 차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2 섬유

○ 섬유 및 관련 제품 수출 현황

- '17년 기준, 멕시코 섬유 및 관련 제품의 수출은 약 64억 달러로 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전 세계 9위 섬유 제품 수출 국가
- 멕시코의 섬유 및 관련 제품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량의 약 86.8% 비중을 차지, 캐나다가 2.1%로 그 뒤를 이으며 NAFTA 체결국 위주로 수출
- 멕시코 섬유공업협회(Canaintex)에 따르면, 주요 수출 품목은 청바지 및 데님 상품

< 멕시코 섬유 및 관련 제품 수출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국가	2015	2016	2017	2018 (2분기 누계)
미국	5,901	5,625	5,582	2,761
캐나다	108	123	132	73
니카라과	82	77	72	45
콜롬비아	63	68	75	38
과테말라	69	58	57	27
기타	563	491	513	354
Total	6,786	6,442	6,433	3,298

* 주 : HS Code 50-63호 합산 기준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섬유 및 관련 제품 수입 현황

- '17년 기준, 멕시코 섬유 및 관련 품목 수입은 약 102억 달러 규모로 집계 되었으며 최근 3년간 보합세
- 멕시코의 섬유 및 관련 품목 주요 수입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입의 39.2%를 차지하며 중국이 27.1%로 그 뒤를 따름
- 품목별로는 의류(편물제 및 비편물제)가 전체 수입품의 3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수입되었으며 그 뒤로는 침투·도포 직물(11.1%), 인조 필라멘트(10.6%) 순

〈 멕시코 섬유 및 관련 제품 수입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국가	2015	2016	2017	2018 (2분기 누계)
미국	4,415	4,126	4,008	1,989
중국	2,714	2,738	2,771	1,274
인도	332	316	305	172
방글라데시	238	252	251	142
베트남	236	239	242	130
기타	2,573	2,540	2,643	1,403
Total	10,508	10,209	10,220	5,110

* 주 : HS Code 50-63호 합산 기준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기업 진출 현황

- 멕시코 내에는 Nike, Levi's 등 100여개의 글로벌 의류회사들이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
- 다수의 섬유 기업들이 생산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섬유 분야 최대 생산 기업인 Kaltex도 전체 생산량의 0.9%만을 차지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

〈 멕시코 섬유 시장 점유율 현황 〉

(단위 : %)

업체명	점유율
Manufacturas Kaltex SA de CV	0.9
Zagis SA de CV	0.8
Distribuidora de Textiles Avante SA de CV	0.6
Crosco Mexico S de RL de CV	0.6

자료 : Euromonitor

○ 최근 동향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Euromonitor에 따르면 최근 멕시코 내 H&M, Forever21 등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투자 및 진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
 - * 패스트 패션 :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 유통 시키는 의류
- 최근 멕시코는 1993년 8월부터 5년마다 연장해오던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018년 8월 재조사, 반덤핑 조치 연장 예상

작 성 자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용주
- 통상지원팀 김미옥

Global Issue Paper 18-002

NAFTA 재협상과 멕시코 주요 산업별 영향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8년 9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통상지원팀
(TEL 02-3460-3388)
(FAX 02-3460-7925)
I S B N | 979-11-6097-774-5(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